

‘광주미술상’ 30주년 ‘청류탁세’ 전
18일~내년 2월1일 ACC 복합6관
한국화·조각·판화·미디어·서예 등
원로·역대수상작가 작품 65점 전시



1 오건탁 작 '비어가는 인생길'
2 송필용 작 '역사의 흐름', 3 우재길 작 'Light'

맑은 물줄기가 세상을 씻어낸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 있다. 동종업계 선후배, 동료가 주는 상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게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이사장 오건탁, 미술상)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미술상은 역량 있는 청년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미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창립됐다.
많은 예술 단체가 만들어지고 명멸하는 시대에 한 단체가 3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다. 시간은 그저 쌓이는 것이 아니다. 화초를 기르듯 물을 주고 가꾸는 정성이 없으면 소멸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30년’은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숨은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
미술상은 당초 92년 강연군 화백이 금호미술상으로 받은 500만원이 씨앗이 됐다. 이후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박상섭, 오승운, 황영성, 우재길, 김형대 화백 등 중진 원로 작가들이 중지를 모았다. 40여 명 작가들이 기금 마련전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상금과 운영비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을 비롯해 문화단체의 후원 등이 큰 힘이 됐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미술상 창립 30주년 기념전을 열게 돼 화제다. 1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복합 6관) 진행되며 개막식은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청류탁세’(清流濯世)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맑은 물줄기가 세상을 씻어낸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불의하고 오염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염원이 투영돼 있다. 오늘 의 시국과 세태, 시류를 촌철살인으로 꼬집는 주제다.
강연군 원로작가는 “작가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사례”라며 “지금까지 운영상 난관을 맞은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두 6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 미술상 30년 의미를 돌아보고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서양화를 비롯해 한국화, 조각, 판화, 미디어, 서예 등 65점이 관객들을 만난다. 지역미술계 원로를 비롯해 중견, 청년작가에 이르는 60여 명 운영위원들의 작품, 역대 수상작가들 작품이 망라돼 있어 광주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첫 수상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에 주어졌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이 인정을 받았으며 2회 수상자부터 올해까지 25세~45세 사이

의 개인에게 돌아갔다.
송필용(2회), 김동하와 주홍(3회 공동 수상), 문인상과 박동신(4회 공동 수상), 이준석, 박종석, 주재현, 이아남, 조성호, 나명규, 김숙빈, 김도기, 신창운, 임병중, 박현수, 김진화, 진시영, 박선주, 임남진, 박소빈, 이정기, 박인선과 윤세영(22회, 공동 수상), 신호운, 권승찬, 이인성, 양나희, 윤종호, 유지원, 정정하, 조유나(30회) 등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32명에게 상이 주어졌다.
오건탁 이사장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청년작가들이 창작의 길로 들어서지만 역량 있는 작가들에 대한 후원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창작지원금 시상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운영위원(명지대 석좌교수)은 최근 광주일보 기고문에서 “광주미술상은 1938년 의재 허백련 선생님께서 무등산 아래 호남서화계의 후진을 위해 발족했던 ‘연진회’ 이후 광주 미술의 중심으로 섰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조직부터 여러 어려움을 딛고 30년을 유지해 온 재단 구성, 그리고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수상자 결정까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땀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한 서안과 고서, 호롱들. (비움박물관 제공)

고물 더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다

예인방, 18일 나주 한전거래소

“고물상은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고물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극이 우리가 잊고 있던 익숙한 존재의 가치, 삶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송수영 연출가)
고물 더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의 연극 한 편이 펼쳐진다. 예인방이 오는 18일 오후 7시 나주 한전전력거래소 다슬홀에서 펼치는 ‘연극을 넘어서 가자’(사진)가 그것.
작품은 삶의 무게감에 고통받는 세 인물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고물상을 점차 물건만 쌓인 공간을 벗어나 각 인물이 숨겨둔 상처, 희망을 발견하는 ‘성소’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주인공 안애(김호영 분)는 고물상에서 버려진 물건에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인물이며, 자롱(홍순창)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미를 지닌 ‘허술한 도박 중독자’ 역할이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는 다혜가 어느 날 고물상을 찾아와 이들 두 사람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혜 역을 맡은 임은희 배우는 전남연극제 연기대상과 대한민국 연극대상(자랑스런 연극인상) 등을 수상했다.



1982년 창단한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은 남도의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지역민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감동을 선사해 온 글로벌 극단이다.
김진호 이사장은 “사람 사는 이야기, 서로 위로 받으며 삶을 지탱하는 이야기를 그린 이번 연극은 힘든 시기를 건너가는 모두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며 “실패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힘, 타인과 함께하는 인간에 등을 주제로 녹였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명의 뒷마당, 책 읽는 아이들과 어른의 가르침’

내년 2월14일까지 비움박물관

오늘날 문명의 시대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특히 겨울밤 책을 읽던 어른들과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가나긴 겨울밤 서안에서 앉아 책을 읽으며 겨울밤을 보내던 선비들, 호롱불 아래 낭랑한 목소리로 독서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정겹기 그지 없다.
문명의 뒷마당에서 펼쳐지던 책 읽는 모습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의 사립민속박물관이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내년 2월 14일까지 독서와 관련된 사물들을 전시한다. 전시 주제는 ‘문명의 뒷마당, 책 읽는 아이들과 어른의 가르침’.
전시장에서는 서안을 비롯해 고서, 등잔, 호롱을 볼 수 있으며 문방사우(벼루, 먹, 종이, 붓)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절 볼 수 있었던 책과 함께 했던 사물들은 오늘의 문명을 일군 귀한 유산들이다. 전시장에서는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가나긴 겨울을 날던 선조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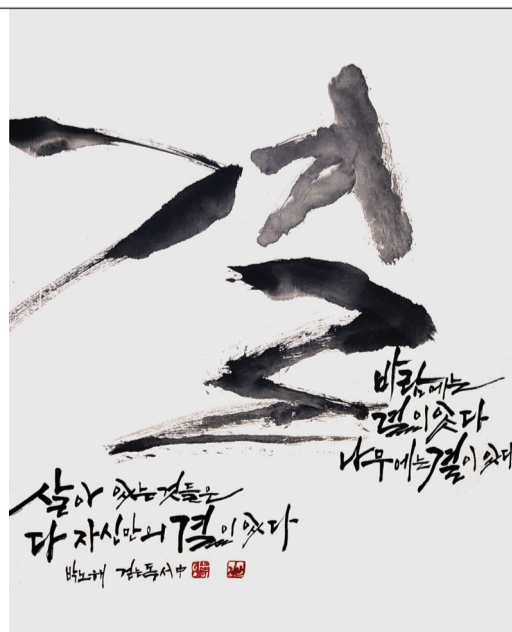
려볼 수 있다.
이영화 관장은 “문명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호롱불을 벗 삼아 귀한 책들을 읽곤 했다”며 “이번 전시를 매개로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지혜와 자세를 새겨볼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움박물관은 3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을 갖추고 계절마다 주제에 맞는 전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속에서 삶의 길을 묻다’

캘리그래피회원들, 14명 작가 참여 18일까지 무등갤러리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를 말한다. 짧은 글을 표현한 독창적인 도안이 해당된다. 저마다 개성적인 글씨는 보는 이에게 남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캘리그래피 작가들 모임인 캘리그래피회원들의 10회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단체는 한글을 예쁘고 상업적인 글씨를 넘어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추구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며 공무원, 자영업, 주부, 강사, 전문작가 등 직업도 상이하다.
오는 1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글속에서 삶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모두 14명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은 붓, 롤러, 나무젓가락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다. 그 가운데 붓글씨로 구현한 작품들은 목의 고아한 이미지와 깊은 느낌을 받는다. 다른 도구

로 형상화한 작품도 도구가 지닌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
서현정 작가의 지도를 받은 승운경, 오재영, 정미아, 신서영, 손희숙, 임윤미, 김민희, 김선옥, 최선미, 고상원, 현범식, 류은선, 권은경 작가가 참여했다.
임윤미 작가의 ‘결’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유하게 한다. “살아 있는 것들은 다 자신만의 결이 있다”는 문구는 생명체나 사물이나 독특한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한편 서현정 작가는 “작품을 하려면 글귀를 뽑아야 한다. 책을 많이 봐야 한다. 내 가슴에 와닿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 마음이 힘들면 용기를 주는 글이 가슴



임윤미 작 '결'
깊이 다가 온다”며 “혹여 힘든 이들이 동일한 작품을 보고 힘을 낸다면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준현이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1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서양 피아노음악 역사상 구약성서에 비견되는 바흐의 ‘평균율’ 48곡이 있다면, 신약에 빗대어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은 연주에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대규모를 자랑한다.
K피아노스튜디오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Ⅲ’을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피아니스트 김준현(사진)이 출연해 3번, 10번, 21번 그리고 27번 소나타를 들려준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Op.2, 3번’을 시작으로 ‘피아노 소나타 10번 G장조 Op.14, 2번’을 연주한다. 이어 ‘피아노 소나타 27번 E단조 Op.90’,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Op.53 발트슈타인’이 울려 퍼진다.



광주예고와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 씨는 광주국립제교뮤지엄음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K피아노스튜디오 대표로 있다. 이외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초청 연주회와 쇼팽탄생 200주년 기념 하우스콘서트, 슈만탄생 200주년 기념 슈만연구해석법 및 피아노 워크숍에 참가해 연주자·연구자로서 기량을 펼쳤다.
김준현은 “베토벤 ‘완주’는 높은 산을 등정하는 것처럼 험난한 여정이다”며 “이번이 세 번째 무대인데, 관객들에게 베토벤 작품에 투영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